

## 차세대 한은금융망 주요 개선 및 변경 내용

- 한은금융망은 최초 가동(1994년) 이후 혼합형결제<sup>■</sup>, 증권대금동시결제, 일중RP 등의 도입으로 시스템이 복잡해졌으나 금번에 결제방식 개선, 결제계좌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차세대시스템 구축에 따라 **시스템 안전성과 결제 효율성**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
  - 실시간 총액결제(실시간 결제완결성 보장)에 유동성절감 결제방식(양자간 또는 다자간 동시처리를 통한 금융기관의 결제자금 조달 부담을 경감)을 추가
- (**결제방식 개선**) 유동성절감 결제방식(양자간 또는 다자간 동시처리) 중 시스템 부하를 가중시키는 양자간 동시처리를 폐지하고 **다자간 동시처리<sup>■</sup>**의 **실행 주기를 단축**(30분 간격 ⇒ 5분 간격)
  - 정해진 시간마다 모든 참가기관들의 결제 건들을 모아 서로 주고받을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고 현재 예금잔액 범위에서 결제 가능한 건들을 동시에 결제
- (**결제계좌 정비**) 자금이체를 위해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개설한 당좌예금계좌 및 결제전용예금계좌 가운데 결제전용예금계좌를 폐지하고 별도로 **결제전용 당좌예금계좌**를 추가로 개설하여 참가기관의 결제자금 부족 시 동 계좌로 **일중당좌대출<sup>■</sup>**이 자동 실행되도록 변경<sup>■</sup>
  - 영업시간중 참가기관의 일시적인 결제자금 부족시 한국은행이 유동성을 지원하는 제도
  - 기존에는 결제자금 부족시 참가기관이 당좌예금계좌로 일중당좌대출을 공급받은 후 이를 다시 결제전용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는 불편함과 결제지연 리스크가 존재
- (**증권대금동시결제(DVP) 효율성 제고**) 장외시장 채권거래시 거래대금은 예탁결제원 계좌를 경유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매매거래 당사자간 직접 이체 되도록 간소화
  - 아울러 동 대금이체를 **다자간 동시처리** 대상에 포함시켜 금융기관의 유동성 부담을 경감
- (**지급결제정보시스템 확충**) 한은금융망의 원활한 운영과 결제리스크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현행 지급결제 모니터링시스템을 **대용량 데이터저장소** (DW; Data Warehouse) 기반의 지급결제정보시스템으로 확충